



총 설

CNU 60th Anniversary



유럽에서 ‘순수한 학도들의 자유로운 조합’으로서 탄생한 대학(University)은 근대 의식의 성숙을 배경으로 도시의 성장과 함께 발전된 특징을 갖는다. 이처럼 사회집단의 소산물인 대학의 역사는 전통과 현대 사회와의 상호관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는 조선시대 최고학부인 성균관이 있으나, 근대식 대학은 서양 문물의 유입과 함께 시작되었다. 개항이후 서구의 신식 학문을 수용하여 부국강병의 기초를 세우고자 하였다. 대원군을 물리치고 집권한 민씨정권은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개화정책을 펴나갔다. 정부에서는 동문학과 육영공원을 설립하여 영어와 자연과학·경제학 같은 신학문을 교육하였으며, 선교사들은 배재학당·이화학당·경신학교·정신여학교·숭실학교 등 각지에 미션학교를 설립하여 초중등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정부에서는 상공학교·의학고 등 전문학교 관제를 발표하여 전문기술을 교육하고자 하였다. 대학교 설립의 구상을 담은 관제도 발표하였으나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1905년 보성전문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숭실학당에서 설립한 대학부가 있으니 최초의 근대 대학체제를 갖춘 학교라 할 수 있다.

일제는 한국을 강점한 직후 한국인에 대한 우민정책을 실시하여 교육기관의 전면적인 격하를 단행했다. 이와 같은 식민지 학제에서 대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 선교사들의 대학교를 설립하려는 요구도 모두 기각되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총독부의 교육정책은 일시 변화하였다. 무단적 식민통치에 대한 전민족적인 저항에 일제는 이른바 문화통치라는 미명하에 민족분할통치 방침을 택하였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을 설립하여 조선인 상층의 교육열을 발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자 하였다. 1922년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규정을 삽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 민립대학설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총독부에서는 1923년 관립대학 설립계획을 세워 이듬해 신속하게 학생을 모집하여 경성제국대학의 개교를 보게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한국인 본위의 교육을 주장한 민립대학설립운동을 저지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었다.

해방이후 일제의 식민주의적 교육체제를 청산하고 민족 본위의 새로운 교육정책에 의한 인재양성이 요구되었다. 해방 후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은 기존의 사립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켜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관공립학교를 통합하여 하나의 종합대학교를 설립하는 고등



교육정책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대학들이 설립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학 교육은 마비되었다. 교수들 중에 납북된 이도 있으며, 학생들은 의용군으로 학교를 떠났다. 1951년 봄부터 전쟁은 38도선 부근에서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다. 문교부에서는 1951년 5월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을 내려 전시연합대학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각기 피난지역에서 전시연합대학을 설치하고 대학 교육을 재개하게 되었다.

대전 충남지역에서도 1951년 5월 전시연합대학이 설치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재직 중 피난 온 민태식·손낙범 교수와 한학자 김순동 등이 대전으로 피난 온 재경 대학생들을 위하여 전시연합대학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여기에 대덕군 출신 제헌국회의원 송진백이 합세하여 충청남도 전시연합대학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송진백이 운영위원장에 선임되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문교부와 협의하여 1951년 5월 전시연합대학을 발족하였다. 학장에는 민태식이 취임하고 재경 충남 출신 교수·학자들이 출강하였으니 이것이 충남대학교 설립의 모태가 되었다. 그 후 전시연합대학 설립자들을 비롯한 지방 유지들은 충남지역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 할 종합대학의 설립 취지를 충남도지사인 이영진에게 전달하여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전시연합대학 운영위원회 체제를 충남대학교설립기성회 체제로 개편하고 회장에는 당연직으로 이영진 도지사가 맡았으며 사무실은 충남도청 내에 두게 되었다.

충남대학은 1952년 5월 25일 ‘충남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응할’ 목적으로 도립대학으로 창립되었다. 개교 당시에 도 당국의 행정 지원과 국유 재산의 부지 제공이 있었으나, 기성회를 주축으로 한 각계 유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특히 3백만 도민의 정성스러운 모금운동 등이 하나가 되어 도립 충남대학교의 설립 인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특정한 종파나 재단의 주도하에 설립되지 않고 충남도민 전체의 정성과 힘에 의해 개교되었음은 대학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쉽지 않다. 우리 대학의 설립은 전쟁의 와중에서도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전 충남도민이 모금한 기금으로 이룩한 금자탑이며, 대학을 설립하여 자유로운 배움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전도민의 의지의 결과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력에 의한 배움의 터전을 마련한 개척정신과 자주정신은 대학의 진정한 학풍으로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은 전시 체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도의 정비와 연구하는 대학의 학풍 형성에 노력하였다. 초기 대학의 운영은 도지사가 총장 서리를 맡아 주관하는 과도기적 형태를 취하였다. 1953년 전쟁이 끝난 후에 비로소 독자적인 총장체제가 구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개교 당시에는 문리과대학과 농과대학·공과대학의 3개 단과대학에 7개 학과로 출범하여 1954년에는 공과대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및 2부대학을 갖추게 되었다. 성



낙서 도지사의 후임으로 전교교수회에서 선출된 민태식 총장은 1954년 12월부터 1960년에 이르는 만 5년이 넘는 재임 시기에 교지 확장·교사 증축·대학원 인가·도서관 신설·실험실 확장·실습 공장 신설·교원 충원 등의 일을 수행하였다.

1960년대는 우리 대학이 시련 속에서 대학의 기초를 다진 정착기라고 할 수 있다. 1960년 4·19혁명은 한국사회와 대학이 처한 현실에 대한 재인식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학생들은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였으며, 정부의 임명 제도에 의하여 취임한 현직 총학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1961년 5·16군사 쿠데타로 들어선 군사정부는 대학개편에 착수하여 본교는 1962년 3월 1일부로 충북대학과 병합하여 국립충청대학교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충북대학교와는 이듬해 다시 분리되어 국립 충남대학교로 환원되었다. 1964년 한일회담의 중지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이 일어났으며, 3월 24일 서울의 시위에 맞추어 우리도 3월 26일부터 쫓겨대회가 일어났다.

1960년대 우리대학은 학생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속에서도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하고 학문연구의 전당으로서의 학풍조성에 힘썼다. 또한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전통적인 승문주의의 경향으로 인문 사회과학분야에 초점을 맞춘 대학 교육을 극복하여 산업 전문가의 양성이 절실했던 것이다. 의과대학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공과대학의 신축 공사를 완공하였다. 도서관도 준공하여 학생들에게 면학의 여건을 조성해주었다.

1970년대 학원내의 민주화운동으로 대학의 임시휴교 조치가 잇따랐다. 박정희 정권이 1972년 10월유신을 발표함에 대학에서는 유신반대와 교련 반대 시위가 일어났으며, 정부에서는 학원 질서 확립을 미명으로 위수령을 공포하였다. 이는 5·16이후 위축된 교권과 학원의 자율성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73년 2월 문교부차관 출신의 박희범 총장이 취임하여 유신체제하의 질서 유지를 강조하고 학생의 민주화운동을 엄단하였다. 한편으로는 정력적으로 학사개편을 단행하였으니, 대덕연구단지로의 대학 이전과 같은 대학발전계획을 추진하였다. 1977년 6월 대덕캠퍼스의 건설공사가 시작되어 1978년 8월 공업교육대학의 이전을 시작으로 1979년에는 문과대학과 이과대학이 이전하였다. 대덕캠퍼스의 성립과 함께 때를 맞추어 학생정원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그에 따른 교수 정원도 크게 증가하여 명실 공히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되었다.

1989년부터 총장 직선제 선거가 시행되어 제11대 오덕균 총장이 선출되었으며, 정덕기·윤형원·이광진·양현수·송용호에 이어 2012년 제17대 정상철 총장까지 교수 직접 선거에 의한 총장 선출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사회과학대학·수의과대학·예술대학·법경대학·약학대학·생활과학대학·간호대학 그리고 생명시스템과학대학 등이 신설되었고, 고시관 및 교시탐·박물관·임해수



련원·정심화국제문화회관 등의 시설이 속속 준공되어,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었다. 유관 기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능한 인사들을 겸임 교수로 활용함으로써, 산학연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기반도 조성하였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급 두뇌의 양성을 목표로 국제교류부의 설치와 운영에 적극적으로 있었다. 또한 대학간 학생 교류 및 학점 인정제를 추진하여, 학생의 수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대학 교육이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던 이전의 관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교육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졌다. 사회교육원의 확대 운영과 생활과학대학 주관의 생활 문화 강좌가 전개되었다. 박물관에서는 박물관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꽃길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을 하나로 연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대학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1994년 중부권 국책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대학종합평가에서는 전국 3위를 차지하였다. 1996년에는 교육개혁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1999년 시사저널 ‘아시아위크’지에서 선정하는 아시아지역 79개 명문대학 중에서 62위를 차지하였다. 지방대 특성화사업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2000년도에는 제4회 산학연 컨소시엄 평가 결과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1년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에서 발표한 세계 500대 대학 중에 우리 학교가 400위권에 포함되는 등 ‘창의·개발·봉사’의 이념으로 세계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도약하고 있다.